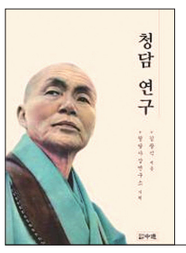
불교정화운동 주역 청담 스님 연구 집대성



청담연구
김광식 지음 / 청담사상연구소 기획
도서출판 중도 / 2만5000원

배희정 객원기자 hbpress@hyunbul.com

청담 대종사(1902~1971)는 조계종 총무원장, 장로원장, 종정 등을 지내며 한국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스님은 불교정화운동 당시 이론과 방향을 수립하고 1955년 8월 전국승려대회를 주도했다. 정화운동이 일단락된 뒤에는 재건된 조계종단의 총무원장을 맡아 1962년 통합종단 출범을 주도했다.

'한국불교 정화운동의 주역' 청담 스님의 발자취를 재조명한 연구서가 나왔다.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가 지난 20년간 발표한 청담 스님 관련 논문 13편을 묶은 〈청담 연구〉다.

청담사상연구소가 기획한 이 책은 불교정화운동이 단순히 종단 차원의 개혁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불교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신행 문화 정립을 지향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역사적 의의를 새롭게 환기한다.

또 정화 과정에서 빚어진 다양한 논쟁 속에서도 전통적 수행법을 바탕으로 시대적 혁신을 이끌었던 청담 스님의 발자취를 조명함으로써, 오늘날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책은 청담 스님의 생애와 불교정화운동을 조명한 1부, 사상과 대안을 다룬 2부로 구성됐다.

김광식 교수는 청담 스님을 "한국불교 정화운동의 주역", "상구보리·하화중생 하는 본연의 자세로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이끈 큰 스님"이라고 규정하고 스님의 생애, 불교사상, 공적 활동, 불교정화운동의 개요와 배경 등을 기술한다.

김광식 교수, 20년 연구 망라
청담 스님 생애 · 정화운동 조명
"스님의 이상은 구국제세 불교"
"민족불교 재건한 위대한 보살"

청담 스님의 종단 탈퇴는 "불교 근대화를 추구하겠다는 옹골찬 결의이자, 종단 개혁을 추구하기 위한 고뇌의 결단"이며, 50년간의 수행 과정 전체가 '불교정화운동'이라고 평가한 김 교수는 스님의 불교정화 이념이 지성불교·수행불교·승단정화·민족불교로 이어졌다고 서술한다.

나아가 청담 스님이 교단·승단·신도 정화를 추진 방향으로 삼고, 이를 위해 도제 양성·포교·역경 등 3대 지표를 내세운 과정을 조명한다.

특히 청담 스님이 1954년부터 1969년까지 16년에 걸쳐 불교정화를 위해 헌신한 모습에 대해 "그의 행보는 민족불교 재건운동이었다"고 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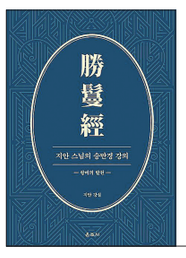
이와 함께 청담 스님이 "인격적인 불교인의 양성, 민족과 함께하는 불교, 나아가 평화로운 세계 창조에 기여하는 한국불교"를 강조했다면서 그의 이상적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구국제세(救國濟世)'라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치열한 수행 속에서도 사건 현장으로 달려가고 불교를 위한 어떠한 고난도 감수했던 청담 스님을 '위대한 보살'이라고 부르고 싶다"면서 "청담 스님의 지성은 한국불교와 조계종단이 처한 위기에도 절대적으로 요청된다"고 말한다.

이어 "이번 책은 지난 연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려는 의지의 산물"이라면서 "청담 스님 관련 분야에 활용되고 청담 정신이 불교계에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책은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했던 청담 스님의 고뇌와 활동을 재조명함으로써, 오늘날 한국불교가 청담 스님의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구현해야 할지 성찰하게 한다.

'승만경'에 담긴 대승불교 본질 읽다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의
지안 스님 강설
운주사 /1만3000원

대강백 지안 스님의 〈승만경〉 해설
"여래장 · 일불승 사상 담긴 대승찬탄경"

한평생 승가 교육자로 후학을 양성해 온 강백 지안 스님(반야불교문화연구원장)이 수많은 경전 중 유일하게 여성이 설하는 경전인 〈승만경〉을 풀이했다.

〈승만경〉은 유마거사(維摩居士)가 설한 〈유마경(維摩經)〉과 함께 재가불교에 의해 설해진 드문 경전으로, 우바이 승만 부인과 부처님의 대화 형식으로 전개된다. 특히 승만 부인이 정법을 수호하겠다는 장렬한 의지를 드러낸 십대 서원이 널리 알려져 있다.

지안 스님은 "대승 정신을 강조한 데 있어 〈승만경〉을 능가할 만한 경전이 없다"며 "대승의 올바른 진리를 드러낸 '대승찬탄경'"이라고 소개한다. 지난 2022년 본지에 〈승만경〉 강의를 연재한 바 있는 스님은 "신심과 신행 의지를 고취하고, 대승 교법을 이해하기 위해 꼭 권하고 싶다"는 바람을 담아 〈승만경〉을 새롭게 번역하고 해설을 곁들였다.

책은 〈고려대장경〉에 수록된 경본을 토대로 원문을 '여래진실공덕장', '십대수장', '삼대원장' 등 15장으로 구성했다. 승만 부인이 세운 대서원(大誓願), 보살로서의 이타행 맹세, 사성제의 이치 등 내용을 우리말로 옮기고 핵심 내용에 해설을 덧붙였다. 다른 해설서와 달리 단순한 내용 번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안 스님의 강설을 실어 독자들의 불교적 이해를 돕는다.

지안 스님은 〈승만경〉이 '모든 중생이 곧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는 여래장(如來藏), '성문, 연각, 보살의 가르침은 결국 일불승으로 귀결된다'는 '일불승(一佛乘)' 등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스님은 강설을 통해 "대승에 의해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법이 비롯됐다는 주장은 〈법화경〉의 대의인 '회삼승 귀일승'의 뜻과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한다.

스님은 "올바른 진리를 수호하고 나쁜 법에 빠진 사람들을 교화하겠다는 승만 부인의 지극한 서원은 여래장, 즉 우리 마음속 부처의 씨앗을 싹틔운다"며 "이 경전은 불교 신행의 모범을 보여 주기에 현대인들이 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꼭 읽어 보기를 권한다"고 당부했다.

지안 스님은 1970년 통도사로 출가해 통도사강원을 졸업했다. 이후 40여 년간 승가대학과 승가대학원에서 경전을 강의했다. 조계종 고시위원장과 교육원 역경위원장, 은해사승가대학장, 직지사 불전한문승가대학원장, 서울불학승가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반야불교문화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금강경 강해〉, 〈대승기신론 신강〉, 〈선가귀감 강의〉, 〈처음처럼〉, 〈선시산책〉 등이, 역서로 〈왕오천축국전〉이 있다. 산문집 〈마음의 정원을 거닐다〉, 〈산사는 깊다〉, 〈안부〉 등을 펴냈다.

배희정 객원기자

철학자와 스님의 윤리적 쟁점 대담



피터 싱어, 불교와 만나다
피터 싱어 · 스자오후이 지음
정환희 옮김
운주사 / 2만원

세계적 윤리학자 피터 싱어 교수가 낙태와 생명윤리 등 다양한 윤리적 쟁점을 두고 대만의 비구니 스님과 나눈 대담이 책으로 출간됐다.

〈피터 싱어, 불교와 만나다〉는 피터 싱어 교수가 대만의 사회운동가인 스자오후이 스님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나눈 윤리적 대화를 담은 책이다.

피터 싱어 미국 프리스턴대학교 교수는 1975년 저서 〈동물 해방〉을 통해 서구 동물권 운동의 기틀을 다지고 '효과적 이타주의'를 강조해 온 철학자다.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쾌락과 고통의 계산'을 기준으로 바라보며, '효과적 이타주의'라는 윤리적 실천 운동을 제안해 왔다. 2021년 '철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베르그루엔상을 수상했다.

스자오후이 스님은 대만 불교홍서학원 설립자로 동물 보호, 사형제 폐지, 여성 및 성소수자의 인권 증진 등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수행자다.

임신 중절 · 안락사 · 성전환 등 윤리적 담론으로 미래 성찰

이 책은 두 사람이 2016년 대만 보리선원에서 열린 동물 복지 세미나에서 만난 후, 5년에 걸쳐 이메일과 화상 통화로 주고받은 대화를 엮었다. 섹슈얼리티, 배아 연구와 임신 중절, 안락사와 자살 등 주요 윤리적 쟁점에 관한 각자의 입장과 견해를 대화로 풀어간다.

임신 중절 문제에 대해 스자오후이 스님은 임신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사례를 들며 "여성마다 처한 정신적·신체적 상태, 개인적 상황을 고려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피터 싱어 교수는 "스님은 임신 중절을 정당화하기 위해 매우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지만, 저는 의식이 없는 배아나 태아의 생명을 끝내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안락사 문제에 대해 스자오후이 스님은 "불교에서 안락사는 권장되는 선택은 아니지만, 불치병 환자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환자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죽음뿐이라면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피터 싱어 교수 역시 "정신적 능력이 있는 환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의학적 도움을 원한다면, 법에 따라 의사가 조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다.

성전환 문제에 대해 스자오후이 스님은 "부처님은 이들을 차별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피터 싱어 교수는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고도 자신을 다른 성별로 식별하는 이가 많다"며 생리학적 혹은 해부학적 구조의 문제는 '개인적 성별 식별과 별개'라는 태도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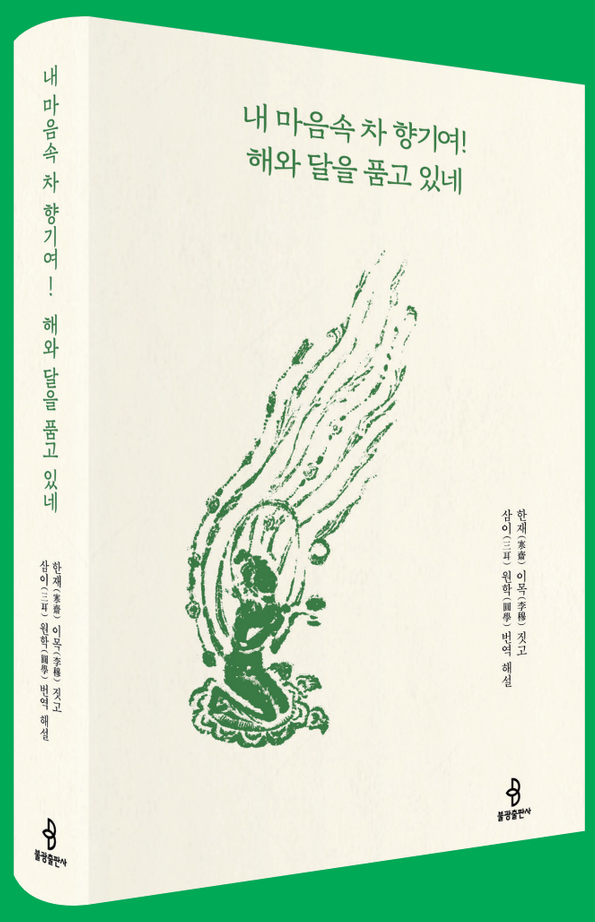
책은 두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입장을 나누고 경청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스자오후이 스님은 피터 싱어 교수를 "대승경전에서 튀어나온 보살과 같은 존재"라고 평하고, 피터 싱어 교수 또한 스님을 "세상의 고통과 불의를 줄이는 데 역할을 다해야 함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칭한다.

서로 다른 전통과 언어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두 사상가의 다양한 윤리적 담론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성찰과 탐구의 장을 마련한다. 피터 싱어 교수는 "윤리의 본질에 관한 우리의 대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양한 관점을 찾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희정 객원기자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고(最古)의 다경(茶經),
한재 이목의 「다부(茶賦)」!

수행자이자 다인(茶人)인
원학 스님의 해설로
차의 진면목을 만나다!



초의 선사의 『동다송』보다도 340여 년 앞서 차의 미덕을 예찬한 「다부」
그 속에 담긴 차향을 수행자의 삶에서 되살리다

「다부」는 조선 전기의 문신이었던 한재 이목이 차와의 인연, 차의 미덕 등, 차에 대한 의견을 써내려간 부(賦, 무언가를 아름답게 그려내는 문체의 글)이다. 『내 마음속 차 향기여 해와 달을 품고 있네』는 차를 수행의 한 방편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실천해 온 우리 시대 최고의 다인(茶人)이라 할 수 있는 원학 스님이 「다부」를 옮기고 풀어낸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차분한 차향 속에 잊힌 정신성과 수행의 지혜를 다시 불러낼 수 있을 것이다.



내 마음속 차 향기여!
해와 달을 품고 있네

한재 이목 지음 | 삼이 원학 스님 번역·해설
224쪽 | 양장 | 22,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